

학폭 못 막는 '허수아비 CCTV'

광주·전남 학교 1만개... 대부분 50만 화소 밑돌아 사각지대·화질 떨어져 얼굴·차 번호판 식별 못해

광주·전남 지역 학교에 1만10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학교 폭력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데다, 화질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전담경찰(스콜폴리스)도 한 명이 20개교 안팎을 맡고 있는 '무늬만 전담경찰'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나마 이들도 학교 내 CCTV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없이 범죄 발생 확인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경북 경산 고교생 자살사건으로 CCTV 활용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305개 초·중·고교에 2791대의 CCTV가 설치돼 운용중이며 전남에서는 834개교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CTV 7317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장애물로 인해 정확한 사물 식별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돼 있는 가 하면, 화질도 50만 화소 이하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또 적외선 기능도 없던 경북 경산 고교생 자살사건으로 CCTV 활용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광주의 경우 305개 학교에 설치된 2791개의 CCTV 중 50만 화소 이상은 고작 7.92%에 불과하고 전남도는 834개교의 7317개 폐쇄회로TV 중 2211대(30%)만 50만 화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목표로 추진중인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스콜폴리스) 제도도 학교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광주의 경우 21명, 전남은 40명인 한 명당 20여개교 학교 폭력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학생 얼굴도 모르는 잘 모르는 경찰관이 가끔 학교에 찾아와 둘러보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장이 들여다보고 있는 방

범용·어린이보호용·차량보호인식용 CCTV도 비슷하다. 총 491대의 CCTV 중 112대만이 1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379대는 41만 화소 수준이다. 41만 화소의 CCTV로는 찍힌 영상 자료를 2배 확대해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었다.

325대의 방범용 CCTV는 325대 중 302대가, 153대의 어린이보호용 CCTV는 66대가,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13대 중 11대가 41만 화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해 모두 913명의 학생이 학교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에 100만 화소급 CCTV 확대 설치

정부, 일진 집중 단속

정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 고화질 CCTV(폐쇄회로TV)를 추가 설치하고 일진 등 폭력서클을 집중 단속한다.

전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학교폭력 관련 부처 긴급차관회의를 열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1학년 최모군이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개설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외부인 출입관리 상황 등 교내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등굣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실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로 확대한다.

경찰은 학기 초에 일진과 폭력서클 결성이 집중되는 만큼 이를 집중 단속하고 상습폭행이나 보복폭행 등 중한 사안이 발생하면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000억 횡령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 한려대 등 3개대 교비 576억 횡령

교과부 감사서 드러나

1000억원대 사학비리로 구속기소된 이홍하(74)씨가 서남대 외에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자신이 세운 다른 대학 3곳에서도 교비 57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남대처럼 3개 대학도 감사 지적 사항을 바로잡지 못하면 학교폐쇄 등 조치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교과부는 작년 12월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이어 올해 1월 광양시의 4년제대학 한려대와 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 경기 화성시의 4년제대학

신경대에 대해 벌인 특정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설립자 이씨는 차명계좌로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에서 교비 576억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는 서남대 부속병원의 간호사 등을 21명과 14명씩 교수로 허위 임용하고 교비회계로 인건비 29억원을 부당지급했다. 3개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도 부실해 토지 손실보상금과 예금 등 137억 5000여만원을 불분명한 용도로 썼다.

/연합뉴스



친절교육 받는 공무원

광주시 북구 소속 공무원들이 14일 북구 용봉동 청사 3층 회의실에서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민원 응대 기법'이라는 주제로 친절교육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염소·개 수천마리 불법 유통

광주 광산경찰은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와 개 등을 도축, 유통한 혐의(축산물가공관리법 위반)로 김모(57)씨 등 일가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 1월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광주 서구 덕흥동에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놓고 염소·개 등을 도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이 3년여에 걸친 점을 고려, 유통 물량이 수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조폭 두목 어머니 장례에 경찰 긴장

조폭 두목 어머니 장례에 경찰 긴장

○조폭폭력배 두목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전국적 조폭들이 대거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비상.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밤 10시10분경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30여 년 간 당뇨와 혈압 등 지병을 앓다 숨진 A(여·79)씨가 광주를 본거지로 했던 전국구 폭력조직 두목의 모친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장례식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긴장.

○경찰은 별다른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폭들의 집단 조문이 예상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입장.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중고생 무더기 범죄자 만든 스마트폰

절도 혐의 38명 적발

3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시 남구 일대의 찜질방과 교실, PC방 등에서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1대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찜질방, 학교 교실, PC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1대당 5만~20만원의 벌금과 징역 1달을 감형 등에 팔아넘겼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시 남구 일대의 찜질방과 교실, PC방 등에서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1대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찜질방, 학교 교실, PC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1대당 5만~20만원의 벌금과 징역 1달을 감형 등에 팔아넘겼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말 많은 학교자치조례 결국 법정 가나

광주시의회 재의결... 교과부, 대법 제소할 듯

말 많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가 14일 학교자치조례를 재의결함에 따라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 교육·사회단체도 조례 폐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해 이를 둘러싼 지역 교육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재의결'을 재의결 했다. 전체 의원 26명 중 25명이 찬성, 2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9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재의결에 따라 학교자치조례는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하지만,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확

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최종 제정 여부는 7월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학교자치조례 소송의 쟁점은 상위법 위반과 예산 편성권 제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조례가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예산편성 등 권한을 제한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의 평가권'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축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축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용, 평일평문 고객제-
맥주 소스 주 1명 와인 소스 생맥주 1잔 택1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Canon

EOS 60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